

<숲>

하나의 수기를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있을 수 없는 일. 다수가 아닌 소수의 입장에 처한 사람. 수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놀라웠다.

‘군대에서 부하장교가 직속상관에게 충격을 드리다.’ 이 수기 제목에서 많은 것들이 불가능 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군대, 직속상관. 많은 사람들이 옳지 못한 일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고치지는 못하는 곳이며, 폐쇄된 공간에서 암묵적으로 흘러가는 규칙은 사실상 법과 다름이 없다. 다수가 이 규칙을 따르고 행하는 입장이기에 이 글의 글쓴이는 외로이 혼자 버틸 수밖에 없는 ‘소수’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수의 사람들은 절대적 우위를 점하며, 분명 글쓴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를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난 돌이라 칭했을 것이다.

그 때, 소수였던 글쓴이는 많은 생각과 후회를 하였을지도 모른다. 바로 나처럼 말이다.

2014년 9월 나는 내부 고발자가 되었다.

현재 군대가 많이 바뀌었다고들 하지만, 그 말은 내가 군대에 있을 때도 들었던 말이다. 당시 나는 육군 일병이었는데, 컨테이너 창고에서 선임 병사가 나에게 폭행을 가했다. 다섯 명이 그 안에 있었고, 나는 옆드려있었으며 선임 병사는 쇠파이프를 들었다.

그 선임 병사가 말했던 내가 폭행을 당하는 이유는 MG50, m60(둘 다 장갑차에 거치되는 기관총) 분해 조립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것을 어느 누구에게도 배우질 못했다. 내가 그리 말하자 ‘그럼 배우려고 찾아왔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선임 병사가 답했다. 나는 정비과 계원의 보직을 갖고 있었다. 나의 말이 핑계일 수 있겠지만 그동안 있었던 일정과 훈련을 생각하면 배울 수가 없었다. 계속되는 검열과 훈련에 우리 부대는 쉴 틈이 없었고 그 상황에서 누구도 나에게 분해 조립을 알려주지 않았다. 솔직하게 말하면 억울했다. 그리고 내게 별어진 일은 정의라는 단어와 거리가 멀었다. 그래서 나는 정비과 부사관에게 이 일을 알렸다.

‘당시에 이러한 사례가 자연스럽게 만연되어 있으며 부패라는 의식을 전혀

갖지 않는 군대 문화를, 우리 부대에서부터라도 변화를 갖게 하는데 미력하나마 계기를 만들겠다는 순진한 의지를 가지고 비록 내가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하면서도 이슈를 제기했다는 것이다.’

나는 이 부분에서 많은 것을 되돌아보았다. 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내부 고발자가 된 것은 아니었다. 정말 개인적인 이유로 내부 고발자가 된 것이었다. 그러나 그 사건 이후로 나의 생각만큼은 많이 달라졌다. 악습을 꼭 이어갈 필요는 없다.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바꾸자.

나는 여기서 나의 동기인 박민국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 나는 이 사건으로 인해 분대장이 되지 못했다. 사실 권력에서 멀어지고 군내 정치에서 진 것이다. 그는 내가 폭행을 당한 그곳에 있었고 무엇보다 나와 같이 지낸 시간들이 많았다. 김해 태생인 그는 말투가 거칠었지만 자기 분대원들을 올바르게 이끌었다. 나는 그와 많은 이야기를 했었다. 바꾸자. 악습을 끊자. 보통은 자신이 겪어 온 것들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 다수의 사람들이 ‘내가 이만큼 했으니 다른 이들도 그만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나 혼자서는 못해. 네가 도와줘.”

이 짧은 말이 나를 감동시켰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내부 고발자가 겪는 삶을 말이다. 군대에서는 내부 고발자는 사실상 보호를 받지 못한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 전부라 생각하는 군대였다. 나의 안은 찌어가고 있었지만 말이다. 그런 나에게 그는 같이 변화를 이끌어나가자고 손을 내민 것이다.

나는 자부한다. 나와 그가 가장 위에 있으면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을 때, 가장 결집력이 뛰어났고 유대관계는 다른 소대와 비교 할 수 없이 좋았다. 일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에서도 좋지 않은 소리가 없었다.

“왜 나의 선임 병사들은 이 변화를 두려워했을까?”

아마 앞서 말했던 부분에 그 답이 있을 것이다. 하나는 군대라는 문화. 두 번째는 자신이 겪어온 악습이다.

후에 들은 이야기지만 선임 병사가 나를 폭행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단지 내가 쉬고 있어서였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많은 생각을 했다. 박민국에게 이 말을 하자 그는 웃으며 입을 열었다.

“왜? 숨도 쉬지 말라고 하지.”

나와 그는 소리 내어 웃었다. 지나간 일. 이미 바꿀 수 없는 일. 내가 전역할 때 그는 나에게 좋은 것만 가져가라고 했다. 나쁜 것은 여기다 전부 버리고 가라고. 나와 그는 그렇게 헤어졌다.

“미안하다 민국아. 이제야 버린다. 나쁜 기억들을 말이다. 그리고 고맙다.”

사실 이 수기는 내게는 영웅담과 같아서 가슴에 큰 울림을 줬다. 그리고 이 수기를 통해 나쁜 기억들과 좋은 기억들이 동시에 떠오르며 그 속에서 많은 생각이 들었고 악습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이 글쓴이가 너무나 멋져보였다. 나라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다. 그에 대한 답은 아직 내리지는 못했다.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군대 문화가 바뀌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폐쇄되어 있는 그곳에는 계급이 전부고 힘이다. 1980년대에는 더 했을 것이다. 당시 올바른 행동과 신념을 지키고 살았던 글쓴이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타협을 하고, 아무리 곧은 나무라 해도 강한 바람에는 부러진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이 글쓴이는 부러지지 않았다. 거센 태풍에도 그 자리에 아무렇지 않게 서있었다. 그 나무 주위에 많은 어린 나무들이 자랄 것이고 많은 꽃과 풀이 자랄 것이다. 그 나무로 인해 그곳은 울창한 숲이 될 것이다. 곧은 나무로 인해 숲이 만들어 진 것이다. 나는 그 나무를 진정한 리더십이라 부르고 싶다.